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물가지표 발표 앞둔 경계감..미국증시 이틀째 하락

- 미국증시 이틀째 하락: 대형 기술주가 지수 하락 견인
- 모기지 금리 상승..미국 7월 기존주택 판매, 두달째 감소
- 7월 소기업 낙관지수 전달 대비 개선..CPI 발표 D-1

Summary

미국증시 이틀째 약세

현지시각 8월 11일 화요일 미국증시는 물가지표 발표를 하루 앞둔 경계감 속에 하락 마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관련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 인플레이션 강화에 대한 경계감을 추가로 자극함.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34% 하락한 53,791.85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32% 하락한 7,728.20에 마감. 나스닥 지수는 0.60% 하락한 26,445.45에 거래를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0.33% 하락. 다만 이날 지수 하락은 대체로 대형 기술주 하락이 견인한 바,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32% 상승. 변동성 지수 VIX는 1.16% 하락.

(다우 -0.34%/ S&P500 -0.32%/ 나스닥 -0.60%/ 러셀2000 +0.32%)

호르무즈 재개방 불확실성 여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소식은 일관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음.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오만과 이란 사이 해협 통항 관련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다고 밝혔고 크와자 아시프 파키스탄 국방장관도 미국과 이란이 어떤 형태의 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밝힘. 이에 장중 국제유가는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다만 이란 외무장관 압바스 아라그치는 미국이 지난 6월 양해각서(MOU) 위반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은 없음을 재차 확인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협상은 '절반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밝힘. 이로써 양측 모두 여전히 물러설 의사는 없음을 확인, 유가는 결국 상승 폭을 회복해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었음. 최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듯 협상에 대한 기대와 실제 협상 진전 사이 간극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축소되지 않는 이상 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기존주택 판매 두 달째 감소..소기업 낙관지수는 개선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NAR)가 집계한 7월 기존주택 판매가 공개. 전달 대비 1.7% 감소한 연율 406만채를 기록해 시장 예상보다 감소폭이 컸음. 6월 기존 주택 판매도 전달 대비 1.4% 감소한 바 있어 두 달 연속 거래가 줄어듦을 확인.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건 반등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 올 초 까지만 해도 미국 부동산 업계는 수년간 이어진 주택시장 침체 종료를 기대. 실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2월 한 때 6%를 하회하며 기대에 힘을 실

있음. 다만 이란 전쟁이 시작되며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모기지 금리도 다시 뛰는 등 상황은 악화. 높은 금리에도 잡히지 않는 집값도 문제로 지목되는데, 7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3만 4,100달러를 기록, 1년 전에 비해 2% 상승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이는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과거 초저금리기에 낮은 모기지 금리로 집을 산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낙인 효과가 수요를 억누르는 한편 공급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

이외 전미자영업연맹(NFIB)의 7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공개됨. 7월 수치는 전달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99.8로 집계돼, 52년 장기 평균 98을 웃돌았고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특히 세부 항목 중 고용 계획 부분이 9포인트나 급등, 순증 20%를 기록했고 자본지출 계획도 개선. 해고도 고용도 둔화된 활력 없는 노동 시장 상태는 최근 시장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이나 이날 발표된 지표는 기업, 특히 소기업들이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견디는 한편 경기 확장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음을 세부지표를 통해 확인시켜 줌. 다만 채용 '계획'과 '실제' 채용의 간극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지표를 통한 확인이 필요.

CPI 발표 D-1

이날 시장의 관심이 가장 크게 몰린건 역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소비자 물가지수 공개. 현지 시각 12일 발표될 7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가운데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 관련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되고 있음. 때문에 이번 물가 지표는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실질적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7월 물가 지표는 최근 나타나는 유가 재상승분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는 만큼 물가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인플레이션 완화의 근거로 읽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PPI), 14일에는 미시간대 8월 소비심리지수와 기대인플레이션 공개가 예정돼 있음.

인텔, 증자 규모 하루만에 50억 달러 'UP'

전일 상장 이후 첫 유상증자 계획을 150억 달러 규모로 공시했던 인텔은 이날 조달 규모를 50억 달러 늘려 총 2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밝힘. 발표 하루만에 조달 규모를 3분의 1 가량 키운 것으로 수요가 충분했던 것이 인텔의 증자 규모 확대에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그만큼 자금 수요가 크다는 신호로도 읽힘.

알파벳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과 인텔의 증자 확대, 그리고 엔비디아 주도의 대형 금융 컨소시엄까지 모두 기존 기술 기업이 자체 현금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본지출을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 향후 이들의 자금 조달 빈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비용 상승 여부는 지속 점검해봐야 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특징종목

S&P500 섹터 내 유가 상승을 반영한 에너지(+1.06%)와 유틸리티(+1.11%) 섹터가 상승하며 지수 하단을 지지. 다만 통신 서비스(-2.12%)는 알파벳과 애플비 등을 중심으로 낙폭을 확대. 이외 부동산(-0.86%), 재량 소비재(-0.75%)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음.

대형 기술주 부진..알파벳 연일 하락

알파벳(-3.84%)이 최근 5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하고 4거래일 하락. 지난주 회사가 AI 조직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요 임원진, 개발자 등의 회사 이탈과 그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 엔비디아(-0.02%)는 전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로 알려졌던 5,000억 달러 규모 AI 인프라 금융 컨소시엄을 이날 공식 확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6.26%), 블랙스톤(+3.89%), 블랙록(+1.54%),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4.77%), 골드만삭스(-0.01%), KKR(+6.88%)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컴퓨팅 자산을 차입 가능한 자산군처럼 다루는 방식이라는 평가. 장 초반 이 소식을 '사업구조 다양화'로 긍정적으로 읽고 반영했던 엔비디아는 이후 상승분을 반납, 강보합 내지 소폭 하락으로 마감.

애플(-1.09%)은 메모리 공급 부족이 아이폰 신제품의 가격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한편 JP모간이 목표주가를 소폭 하향하자 하락. 애플의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와 월렛을 이끌어온 제니퍼 베일리 부사장이 오는 10월 퇴임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다음달 퇴임하는 가운데 장기 근속 고위 임원들의 퇴사가 이어져 본격 세대교체 국면에 들어갔다는 평가. 애플은 오랜 기간 회사를 이끌어온 경영진이 비슷한 시기에 은퇴 연령에 접어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

이외 특징주

인텔(+0.19%)은 증자 규모 확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소폭 강세 구간에 머물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87%)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며 강세.

스페이스X(-3.93%)는 전일까지 사흘 연속 상승하며 공모가 135달러를 회복했던 흐름에서 벗어나 나흘만에 하락 전환. 대규모 락업 해제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주가를 누르는 모습.

수소 연료 전지 업체 플러그 파워(+5.21%)는 시장 예상을 웃도는 분기 실적과 연간 매출 전망 상황에 힘입어 강하게 상승.

카디널 헬스(+1.30%)는 전분기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는 소식에 1% 내외 상승. 최근 실적 시즌,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전반적으로 예상을 웃돌고 있다는 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수의 하단을 지지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모바일 광고 플랫폼사 앱 러빈(-5.99%)은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도 430달러에서 400달러로 하향한 가운데 낙폭 확대. 앞서 앱

러빈은 지난주 발표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했던 바 있음.

라이엇 플랫폼스(+4.33%)은 엔트로픽이 20년간 라이엇의 데이터센터를 구매하는 91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발표한 가운데 AI 인프라 사업이 비트코인 채굴 대비 훨씬 높은 가치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강세. 번스타인은 라이엇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는 한편 목표주가는 기존 30달러에서 35달러로 높임.

웨드부시는 이번 엔트로픽-라이엇의 계약을 보며 AMD(+1.01%) 반도체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의 리스 계약이 증가하는 것은 AMD에게도 기회라고 설명.

루멘텀 홀딩스(+0.87%)는 회계연도 기준 4분기 매출이 10억달러를 넘겼다고 밝힌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강세. 여전히 강력한 데이터센터 내 광 통신에 대한 시기반 수요가 견인할 실적이라는 평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업체 코어위브(+2.42%)도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10% 이상 상승. AI 서버 제조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0.45%) 역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상승.

노보노디스크(-1.17%)는 일라이 릴리(-1.37%)가 경구용 체중 감량 치료제 '파운다요'의 판매 허가를 영국 의약품 규제청에서 득함에 따라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약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협상 기대가 다시 실망으로..유가 4일째 상승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가운데 4거래일 연속 상승. 이날 오만과 이란이 협상에 있어 진전을 보고 있다는 소식에 기름폭을 반납했던 국제유가는 이란의 봉쇄 유지 방침 재확인과 이에 맞서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며 1% 중반대 기름폭으로 마감. 미국의 전략비축유가 3억 배럴 수준을 이탈하며 1983년 이후 43년래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3% 상승한 배럴당 83.20달러에 마감, 브렌트유 10월물도 1.4% 상승한 배럴당 88.91달러에 마감. 국제 금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날 두 달여만에 온스당 4,400달러선을 돌파함.

물가지표 경계 속 국채금리 소폭 하락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미 국채 금리는 소폭 하락. 전일 국제유가 급등으로 상승했던 금리가 물가 지표 공개를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낙폭은 제한적.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2.7bp 하락한 4.2138%를 기록했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1.8bp 하락한 4.6883%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1.1bp 하락한 5.2403%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9월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50% 내외로 반영 중이며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전장 60% 중반대에서 60% 초반대로 소폭 낮아짐.

달러 보합권 등락

달러 가치는 소폭 하락. 미국과 이란의 합의 가능성과 국제유가 움직임 등을 반영하며 보합권에서 등락. 달러-엔 환율은 159엔 선에 머물러 160엔대 돌파에 대한 경계감을 보였지만 전일 급등(엔화 가치 급락) 이후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음.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99.813으로 보합권에 마감.

달러-원 환율은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종가에서 2.5원 하락한 1,415.90원에 마감해 3거래일 연속 1,410원대 구간에 머무르며 10개월래 최저를 기록.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75원)를 감안시 4.35원 하락, 1,410.90원을 기록.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